

말씀의 샘

속 사람의 변화가 가장 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0절>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저변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에 불만을 품고 “당신은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양 일백마리 중에 한 마리를 들판에서 잃어버리면 어떻게든 찾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잃었던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서 돌아오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개의 드라크마(그리스의 은화-1 데나리온의 가치이며 노동자 하루일당) 중에 하나를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면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구석구석 찾지 않겠냐고 하시며 되 찾으면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두 비유는 같은 맥락의 예화이며 잃었다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양은 들판에서, 드라크마는 집안에서 찾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집안에 있지만 주인의 손에 없으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쨌거나 잃은 양을 찾으러 멀리 들판, 해외로 가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주인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기를 가장 기뻐하시며 이것이 천국에서 기쁨이 됨을 거듭 강조하며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는 예수님은 말씀중에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눅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란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 있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누구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란 말입니까? 본문에 이러한 의문을 품은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걸만 깨끗이 하고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전해온 율전과 율법을 행위로 지켜가고 있지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이라는 비유는 바로 이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속사람이 변화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존재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인들, 교회는 다니지만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종교 생활하듯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바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인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죄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고,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옛 구습을 버리고, 나쁜 마음을 돌이켜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이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옛 구습을 버리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심령과 삶에서 맺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숫자가 중요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우리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종종 건축현금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질머리를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질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예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둘째,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단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틈입니다.

교회 문제는 사실 다 속사람의 문제를 통해 시작됩니다.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도 성품의 틈으로 시작됩니다. 예덴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된 것은 마귀가 “간교한 성품을 가진 뱀”에게 들어가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품적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심령이 연약하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틈을 노리면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너무 정직한 자기 의,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런 성품, 간교하고 이중적인 성품, 말하기를 좋아하는 기질등 마귀가 공동체를 망치기 위해 틈으로 들어오기를 즐기는 전형적인 성품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품이나 기질속에 이런 끼가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 1호입니다. 2016년에 뽑아버려야 할 잡초 1호인 것입니다. 잡초를 뽑으면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처럼 성품의 약점들을 보완하면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삼서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는 축복도 더하실 것이고 강건함의 축복도 더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받고 사업이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성품이 바뀌고 인내심이 강해지고 사랑이 생기고 정죄받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속사람, 건강한 심령이 되는 것을 더 바랍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는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비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바로 성품적인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전부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깨닫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놀랍게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16. 1. 17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1. 24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창세기 12장 1~9절

말 씀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브라함과 예배 공동체"

축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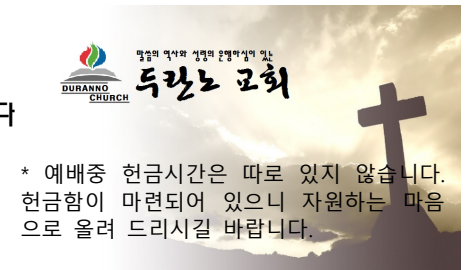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 예배중 헌금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